

THE 15TH PUSAN THEATER FESTIVAL



제 15 회

# 부산연극제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예총부산지회,  
 부산광역시 교육청, KBS 부산방송총국,  
 MBC 2라방송, 부산방송,  
 國際新聞, 극산매일, 釜山日報

2月19日(水) ▶ 3月2日(日)

매일 오후 5시, 7시30분 (첫날 공연 없음)

# 시민회관소강당

\* 본 공연은 문예진흥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공연됨.

공연문의 ☎ 645-3759



## 그 여자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하창길 작 / 허영길 연출

극단 「세 이」

3. 7(토)▶2(일)

### 연출의 변

마음의 문을 열때를 위하여...

창녀 출신의 한 여인의 정신세계를 통하여 현대인들의 다중인격성을 고발하며 이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복잡한 의식구조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외형적인 수식을 벗어버리고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근본 본질(본능)과 신(神)이 선사한 맑은 영혼들이 살아 숨쉬는 것을 믿음을 표출하고자 했다.

극단 Say에 본작품 공연을 쾌히 승락하고 또한 많은 애를 써주신 하창길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연습을 마칠때마다 들려오는 소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한 나도 사실은 다중인격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 말입니다 ...”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해 주었는데 이 무거운 마음을 위하여 열심히 연습에 임해준 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작가의 변

거짓의 숲속에서 ... ..

이 작품은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녀는 한국 고아 출신으로 한국 가정에 입양이 거부되어, 미국에 입양되었던 여자. 더구나 그녀를 보살피던 양부마저 그녀가 바로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뒤, 그녀는 다중인격질환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단순한 몇개의 사건만으로 우리는 그녀의 다중인격질환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단순한 몇개의 사건만으로 우리는 그녀의 다중 인격의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이야기를 접하고 무척 놀랐다. 우리에게 지킬 박사 와 하이드 라는 두가지 서로 갈등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녀에겐 무려 36개의 다른 인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했다. 나는 인간의 존재 그 밑바닥에 엄청난 심연이 있음을. 자기 존재를 보호하고 확인하기 위한 존재에의 열망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를 그날 통해서 막연하나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왜곡된 마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존재를 떠 받들고 있는 어떤 힘이, 어떤 근원이, 어떤 사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작품을 통해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으로 나의 첫 신앙 고백작품이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이제는 마음의 심연을 떠받치고 있는 사랑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동시에 그녀에게만이 아니라 내속에도 그녀처럼 올빼미가 살고 있음도 알았다. 거짓의 숲속에서 울고 있는 올빼미 말이다.

### 극단 Say 공연보

회	작 품 명	작 가	연 출	일 시	장 소	회	작 품 명	작 가	연 출	일 시	장 소
1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엄스	이동재	92.7.17~8.16	Say 소극장	8	보잉보잉	마르코 개롤리티 베릴레이크로스	허영길	95.9.28~10.8	Say 소극장
2	꽃피는 체리	로버트 볼트	허 은	92.10.22~11.29	Say 소극장	9	그 여자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하창길	허영길	95.12.15~12.31	Say 소극장
3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김준기	93.3.17~4.5	Say 소극장	10	호모세파라투스 (제4회부산연극제참가)	이강백	김만중	96.4.13~4.15	부산시민회관
4	깊은 밤까지	이동재	이동재	93.7.10~7.31	Say 소극장	11	미술가게	이상범	허영길	96.7.2~7.28	Say 소극장
5	쥐 닷	아가사 크리스티	김상교	93.8.10~8.29	Say 소극장	12	남자 길들이기 (제13회부산연극제참가)	브레히트	김만중	96.10.19~10.21	부산시민회관
6	미술가게	이상범	허영길	94.7.29~9.21	Say 소극장		남자 길들이기	브레히트	김만중	96.11.7~12.8	Say 소극장
7	이혼의 조건 (제13회부산연극제참가)	윤대성	허영길	95.4.30~5.1	부산문화회관	13	홍당무	질 르나르	허영길	96.12.16~12.18	부산시민회관
	이혼의 조건 (제16회부산연극제참가)	윤대성	허영길	96.5.26~6.18	Say 소극장						



**작품  
줄거리**

주인공 마리아는 그녀가 다니는 성당에 속한 고아원의 아이들 중 한 아이를 교살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도중에 다중 인격을 지닌 정신병자라는 점이 밝혀져 정신병원에서 요양 받고 있는 여자다. 그런데 그녀의 담당의사는 그녀의 정신 병력을 통해 그녀의 내면에 다양하고 추악한 얼굴 외에도 너무 성스러운 면을 발견하는 동시에 그녀의 살인 동기가 너무 희박하다고 느끼고 그녀의 주변 인물을 모아 연극을 재판극 양식의 연극으로 공연하게 된다. 이 재판극 공연 과정을 통해, 그녀의 다중 인격이 다시 재현되고 의사가 혐의를 주고 있는 인물들과 그녀와의 관계가 하나씩 드러난다. 그리고 다중 인격이라는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의 내부에 잠자고 있는 다른 인격도 폭로된다. 그리고 실제 살인범은 그녀가 기거하는 여관의 일하는 여자로 밝혀지고 그 여자 또한 그 무대를 통해 자신이 범죄자임을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는 무대였음도 밝혀진다.

이 작품은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한 교민 여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녀는 다중 인격 질환이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여자인데, 다중인격 질환이란 한 인간의 인격이 여러 다른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아주 희귀한 정신병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한 인간의 영혼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척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라도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한 내밀한 자아와 닿아 있는 존재의 근원인 신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Cast**



의사/ 박찬영



신부/ 최시영



검사/ 주경대



마리아/ 이현미



김욕자/ 임해련



재판장/ 어주선



그 여자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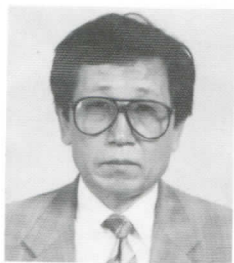
남자/ 문우성



김말분/ 김경희



수녀/ 어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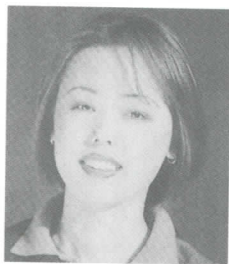
연출/ 허영길



기획/ 김만중



작곡/ 박철흥



조명/ 김진영



미술/ 조석진



무대감독/ 김학지



조연출/ 황속희

# 海光電子

대표 李基煥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73-18 TEL:528-3665~6, FAX:528-3667

# DONG-A SAFETY

건설안전, 도로안전, 산업안전용품 제작, 설치, 판매

365일 당신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경남 양산시 교동 117-10번지 TEL:(0523)386-0750, FAX:385-9548

제1  
제외  
우리  
조명  
2월 1  
행정  
할 때  
역시  
되는  
답습  
한다.  
어떤  
부산  
서울  
부족  
사대  
뿐이  
후원  
회초  
문화  
예술  
개선  
이제  
않겠